

과장급 공무원 UAE 방문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 출장개요

- 기 간 : 2011.10.30(일) ~ 11.3(목)
- 출 장 지 : UAE 아부다비
- 주관기관 :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 참 가 자
 - 통 계 청 산업통계과장 장경세
 - 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장 이종화
 - 기획재정부 재정제도과장 김운상
 - 기획재정부 민영화과장 김성진
 -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장 황순구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최현덕
 - 관 세 청 국제협력팀장 박현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 오세헌
 - 외교통상부 레바논대사관 참사관 오동일
 - KDI 연구원 서중해

□ 회의개요

-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 10명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DED)의 초청에 따라 10.30(일)~11.2(수),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연방 경제부, 연방 대외무역부 등 기관 방문과 함께 아부다비 정부가 개발 중인 마스다르 시티·사디아트 섬 등을 견학
- 금번 방문은 아부다비 경제개발부와 기획재정부간 체결된 공무원 교류협력 MOU(2009.11.3)에 근거하여 아부다비 경제개발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
-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공무원(6명)은 2011.4.23(토)~30(토),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한국의 산업발전 전략 등 경제발전 정책 프로그램 이수와 부산·울산·포항 등 산업현장을 방문한 바 있음

□ 주요 일정

- 10.30(일)
 - 아부다비 경제개발부에서 Aisha Al Shaikh Al Zaabi 통상담당 차관보(Executive Director of Commercial Affairs Sector)는 환영사를 통해 양국관계가 새로운 전기(new momentum)를 맞고 있으며, 아부다비가 추진 중인 탈석유·산업 다변화 전략(diversification)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
 - Aisha 차관보의 환영사에 이어 아부다비 발전전략 2030(Abu Dhabi Plan 2030), 외국인투자법 및 상업법(Commercial Law) 등 경제활동 관련 법률, 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기업활동 지원 내용, 아부다비 중장기 발전전략 구조에 대한 소개와 토의가 이루어 졌음

※ 주요 토의내용 : 아부다비의 수출지원 금융기관(export credit agency) 설립추진 검토, 아부다비의 스폰서 제도 및 역할, 아부다비 발전전략의 연방차원에서 조정 여부 등

◦ 10.31(월)

- 연방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y)의 Dr. Ayman Ibrahim 선임 경제자문관은 주재국의 투자환경과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주재국 중소기업 육성 전략 수립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싱가폴·이태리·독일과 함께 주요 벤치마킹 대상국 5개국 중 하나이었으며 한국으로부터 중소기업 개념 정의 등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주재국이 국적자(Emiratis)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칼리파 펀드를 설립하였다고 소개하였음

◦ 11.1(화)

- 아부다비 상공회의소의 Mohamed Al Muhairi 사무총장은 양국이 비즈니스 측면 뿐만 아니라 상호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기업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the integrated services center)를 소개

※ 원-스톱 서비스 창구 : 각종 인허가 라이선스 지원 획득 및 비자발급 지원 등

- 한편, 당관 지규택 참사관은 한-GCC FTA 협상 재개에 대해 아부다비 상공회의소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Mohamed 사무총장은 FTA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 11.1(화)

- 연방 대외무역부(Ministry of Foreign Trade)의 Abdulla Al Saleh 차관(undersecretary)은 양국간 교역규모가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2012.5.21~5.23일간 아부다비에서 한국 상품 전시회(made in Korea 2012)가 개최될 예정인 바,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음
- 한편, 당관 지규택 참사관은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개최시기 및 전망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Abdulla 차관은 주재국이 GCC 차원에서 FTA 체결의 추진효과가 부정적(negative)인지 긍정적(positive)인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결과(feasibility study)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협상 재개시점은 현재로서 불투명(unclear)하며,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현재 중단된 11개 국가 및 지역(block)과의 협상을 동시에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 또한, Abdulla 차관은 대외무역부는 FTA가 교역에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고 언급하였음

◦ 11.2(수)

- 주재국 칼리파펀드(Khalifa Fund)의 Nizar Cheniour 기업개발담당관(Direct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Dept.)은 칼리파펀드의 역할·주요 육성분야·자금 지원 현황 등에 대해 브리핑하였으며,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사례에 대해 협력의 여지가 많음을 언급하였음

※ 칼리파 펀드

- . 2007년 설치, 주재국 국적자(Emiratis)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문·교육 훈련 등 제공
- . 20억 디람(약 5.5억불)의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자금지원 신청 사업에 대해 승인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261개 사업을 승인 (신청 : 6,653건)하였고, 분기별로 아부다비 내각에 자금 지원 실적을 보고
- . 칼리파 펀드의 주요 육성분야 : 금속, 플라스틱, 항공, 관광, 정보통신 등

◦ 기타 일정

- 아부다비 정부가 개발 중인 탄소 제로도시인 마스다르 시티, 루브르 및 구겐하임 박물관이 건립 예정인 사디아트 섬, 야스 섬 등 개발현장을 방문(10.31(월))
- 박헌 관세청 국제협력과장은 10.31(월) 13:00~15:30, 주재국 연방 관세청을 별도 방문하여 Al Agroobi 국제협력담당관과 양 기관이 진행 중인 “상호 세관지원 협정”에 대해 문안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동 협정이 내년 중 체결될 수 있도록 협의

□ 주요 회의 내용

(1) 아부다비 경제개발부(DED) : 10.30(일) 09:00~12:30

◦ 주재국측 주요 참석자

- Aisha Al Shaikh Al Zaabi 통상담당 차관보(Executive Director of Commercial Affairs Sector), Younes Laurent Boutou 기업개발담당관(Business Development Expert), Huda Al Ali 교역담

당관(Trade Relation Coordinator), Mohamed Haitham Salem
법률 담당관(Legal Expert) 등 경제개발부 공무원 10여명

- Aisha 통상담당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기(new momentum)를 맞고 있으며,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상호 주요한 파트너로 되기를 희망하며, 아부다비 정부가 추진 중인 탈석유·산업 다변화 전략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음
- 환영사에 이어 아부다비 발전전략 2030(비 석유 분야 GDP를 2030년까지 64% 수준으로 향상), 대외투자유치법(Foreign Investment Law)·상업법(Commercial Law, 1984) 등 경제활동 관련 법률, 아부다비의 중장기 발전전략 구조 및 수립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 ※ 발표자 : Abu Dhabi Plan 2030(Mr. Chris),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Mr. Younes Laurent Boutou), Commercial Affairs(Mr. Abdullateef Al Ali), Strategic Planning(Mr. Nassir Al Mutawa), Policy & Legislation(Dr. Mohamed Haitham Salem)
- 경제개발부의 발표에 이어 양국 공무원간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아부다비 경제개발부의 수출 신용지원기관(export credit agency) 설립 검토, 아부다비 발전전략 수립과정에서 경제부 등 연방정부와의 조정 메커니즘 및 주재국 스폰서 제도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음
 - ※ 토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은행 사례가 제시되었고, 주재국의 스폰서는 각종 인·허가 획득 등을 지원하며 파트너(partner) 개념과는 달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 주재국 각 에미리트의 발전 전략은 연방 경제부가 조정역할을 수행(oversight)

(2) 연방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 10.31(월) 08:30~10:00

- 주재국측 참석자 : Dr. Ayman Ibrahim 경제부 선임 자문관
- Ayman 자문관은 주재국의 투자환경 및 경제발전 전략 소개와 함께 특히, 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다고 브리핑하였음
 - 주재국은 지난 2007년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칼리파 펀드(Khalifa Fund)를 설치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 전략 수립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싱가폴·이태리·독일 등 5개국을 벤치마킹하였고 중소기업 정의 및 법률 마련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재국과 적대 관계(animosity)가 없었으며 한국산 제품의 수준이 우수한 바, 한국과의 중소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 강화를 언급하였음
- 또한, Ayman 자문관은 주재국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재국이 2008년에 80억불, 2010년에 68억불 수준의 외국인 투자(FDI)를 유치하여 중동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FDI 유치국이라고 설명하였음

(3)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 11. 1(화) 09:00~10:30

- 주재국측 주요 참석자
 - Mohamed Al Muhairi 상공회의소 사무총장(Director General), Rashed Tarish Al Qubaisi 무역담당 Executive Director, Mohammed Eissa Al-Refaei 국제담당관(Director of Intl & Trade Relations), Hassan Al Ansari 이사회 담당관(Director, Board of Directors Affairs) 등 상공회의소 관계자 10여명

- Mohamed 사무총장은 양국이 비즈니스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서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공무원단 방문을 환영하였음
 - 동 사무총장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8만여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 창구(the integrated services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아울러 상공회의소측은 상공회의소 건물에 입주해 있는 기업활동 지원창구에 대한 시설 소개 및 안내를 30여분간에 걸쳐 진행하였음
- 한편, 당관 지규택 참사관은 Mohamed 사무총장에게 최근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을 설명하고, 양국간 교역규모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GCC FTA 협상 재개에 대한 상공회의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해 Mohamed 사무총장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는 FTA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4) 연방 대외무역부(Ministry of Foreign Trade) : 11. 1(화) 10:45~12:00

- 주재국측 주요 참석자
 - Abdulla Al Saleh 대외무역부 차관(Undersecretary), Mahmood Sharif Mahmood 대외무역정책 담당관(Director Foreign Trade Policies Dept.), Mutar Ahmed Abdullah Al Ali 무역분석관(Director of Trade Analysis & Information Dept.) 등 대외무역부 공무원 10여명
- Abdulla 대외무역부 차관은 세계 유명 다국적 기업의 25%가 주재국에 본거지(base)를 두고 있으며, 주재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아울러, 주재국의 교역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와의 상호투자 및 교역규모가 확대되기를 희망하였음

- 또한, Abdulla 차관은 2012.5.21~23일, 아부다비에서 한국 상품전(Made in Korea 2012)이 개최될 예정으로 동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양국간 긴밀한 협조와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음

○ 한편, 당관 지규택 참사관은 교역증대를 위한 FTA의 주요성을 강조하면서 한-GCC FTA 협상 재개 시기 및 전망 등에 질의하였는 바, Abdulla 차관은 주재국은 현재 GCC 차원에서 FTA 체결의 효과가 부정적(negative)인지 긍정적(positive)인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결과(feasibility study)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음

- 아울러, 현재로서는 한-GCC FTA 협상 재개 시점이 언제인지는 불투명하며, 협상 중단된 11개 국가 및 지역블럭 등과 협상을 동시에 재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였음

- Abdulla 차관은 FTA가 경제협력의 한 가지 형태이며, 양국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성공사례 도출 등을 통해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 우리 공무원 방문단은 향후 주재국 경제의 도전요인에 대해 질의한 바, Abdulla 차관은 미래 주재국의 경제가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산업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며, 국적자(emiratis)의 인구가 소수(11%)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도전 요인 등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5) 칼리파 펀드(Khalifa Fund) : 11. 2(수) 09:00~10:30

- 주재국측 주요 참석자
 - Nizar Cheniour 기업개발 담당관(Directo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Dept.), Ahsan Ali 신용담당관(Director, Credit Dept.), Mohamed Fares Jendi 기업개발 선임담당관(Senior Manager,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Dept.) 등 칼리파펀드 관계자 10여명
- Nizar 기업개발 담당관은 칼리파펀드가 주재국 국적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이들 기업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브리핑하였음
 - 칼리파펀드는 20억 디람(약 5.5억불)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자금지원은 신청, 신용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며 현재까지 6,653건의 신청을 검토하여 261개 사업이 승인(약 1.3억불 규모)되었고 설명하였음
 - 또한, 칼리파펀드는 분기별로 자금지원 실적을 아부다비 내각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칼리파 펀드에 대한 브리핑 후에 우리 방문단 공무원과 칼리파 펀드 관계자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으며, Nizar 담당관은 칼리파펀드의 중점 지원분야가 금속, 플라스틱, 항공, 관광,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등 6개 분야이며 향후 한국 중소기업의 육성정책과 사례에 대해 양국간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고 언급하였음

(6) 세관 상호지원협정 체결 협의 : 10. 31(월) 13:00~15:30

- 주재국측 주요 참석자
 - Suoud Al Agroobi 주재국 연방관세청 국제협력담당관(Direct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meeda Al Jaber 아부다비 관세청 국제협정 담당관(Head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bdullah Omran 두바이 관세청 선임법률연구원(Senior Legal Researcher), Ahmed Nasir 두바이 관세청 선임 경제협정담당관 ((Senior economic agreements officier)

- 금번 우리 방문단에 포함된 박현 관세청 국제협력과장은 방문 일정 중에 당관 지규택 참사관과 함께 주재국 연방관세청을 방문하여 양국 관세청간 진행중인 세관상호지원 협정(Agreements on Cooperation & mutual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 문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 금번 협의에서 양측은 본 협정의 범위에 관한 문안, 불법거래에 관한 관세당국의 수출 허용 여부, 관세당국간 정보교환의 범위, 제공받은 정보의 관계기관 전달 가능여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양국 관세청간 추가 문안 협의를 통해 내년 중 동 협정안이 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음

□ 시사점

- 금번 방문을 통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의 주재국 경제구조와 경제발전 전략, 경제환경, 주재국 연방 및 지방정부의 관계, 주재국 문화 등에 대한 이해도를 보다 제고하였고, 양국 공무원간 직접 접촉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아부다비 경제개발부는 금번 우리 공무원의 방문을 위해 경제부·대외무역부 등 연방부처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칼리파 펀드 등 모든 일정을 주선하였고, 오만찬 제공 등 물적 지원과

함께 아부다비 경제개발부 공무원 2명을 전담배치하여 전일정을 수행하는 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 전담 요원 : Haitham Al Marzouqi 수출 담당관, Mohammed M. Kanaan 선임 조사관

- 아부다비 경제개발부는 금번 방문을 통해 비즈니스 허브로서 주재국의 투자환경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양국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임
- 금번 우리 공무원 방문단은 관계부처의 실무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양국간 협력기조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양국간 경제협력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견급 공무원간 인적 협력기반을 강화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됨
- 향후 양국간 동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실시함으로써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과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당관에서는 내년도 상·하반기에도 양국 공무원간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임